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구역 나눔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각 교실
찬양예배	월 1회, 토요일	음대 강의실 217호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주일 예배 봉사위원

	06. 14	06. 21	06. 28
대표 기도	이수현 집사	유미경 집사	김효종 집사
성경 봉독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헌금 위원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안내 위원	황희순 집사	황희순 집사	황희순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성경 읽기 - 영의 양식으로 삼시다(대하19~36장, 민1~3장)
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각별히 조심하세요.
3. 주보는 각 좌석에 비치됩니다.
4. 기도 - 흠어져 있는 한민 식구들의 영, 육간 강건을 위하여
5. 예배 시 COVID-19 생활 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6. 나눔의 시간은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교우동정

생일	
	장용환 형제(7일) 김영희 권사(13일)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속히 개발되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부활)	
선교헌금	
구제헌금	
특별헌금	
합계(Euro)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기쁨을 나누는 교회(빌2:28)”



교회창립 | 1983년 10월 23일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민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423장 다같이
- 기도 Gebet 김영희 권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눅 1 : 59 - 63(신p88) 이상호 목사
(Lukas 1:59-63)
- 설 교 Predigt 이름으로 보는 인생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425장 다같이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반주자

문제는 우리 내면에 있다

KBS뉴스 “현장 추적”시간에 다음과 같은 보도를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일산 신도시에 많은 돈을 들여 가로수를 심었는데 나무들이 자꾸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영양제를 주사하고, 거름과 물도 주고 정성껏 관리하는데도 살아나지 않고 시들시들 말라만 갑니다. 보다 못해 기중기로 가로수 가운데 한 그루를 뽑았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나무를 현장까지 이송할 때 뿌리에서 흙이 떨어지지 말라고 고무 밧줄로 동여 댄데 심을 때 그것을 끄르거나 자르지 않은 채 그냥 묻은 것입니다. 속사정이 그러한데도 흙이 덮여 있으니 알 턱이 없었던 것입니다.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 나무는 잎이 마르는 증상을 보이면서 서서히 죽어 갔습니다. 같은 날 심은 나무 전체가 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밖으로 보이는 것에만 근거해서 처방을 했던 것입니다. 뿌리에 문제가 있으면 밖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산만 낭비한 채 새로 나무를 이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이는 문제의 근원은 내면에 있습니다. 가로수가 말라 죽는 문제가 뿌리에 있듯이 우리 문제의 근원은 인간 내면, 곧 마음속에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영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개혁은 안과 마음과 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면으로부터의 변화가 진정한 변화입니다.

삼중 혁명의 영성 / 한기채 목사
(중앙성결 교회 담임)

* 순종은 즉각적인 태도이며, 아름답고 자발적인 것이다.

- Phillips Brooks -